

## 디도서 1장

1. 무슨 인사가 이렇게 기나? 인사말 가운데서 바울은 무엇을 위하여 사도가 되었다고 하는지 세 단어만 지적해 보라.

**믿음, 지식, 소망:** 믿음을 일깨우고, 진리를 알게 하고, 그리하여 소망을 가지게 하려고 예수께서 자신을 사도로 세웠다. 사도의 역할을 택한 자들로 하여금 믿고, 알고, 소망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셈이다. 우리는 전도만 중요하게 여기고 '알고 소망하게' 하는 것은 좀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경건함에 속한 진리! 무엇을 소망해야 하는가? 영생이다! 이 모든 것의 출발점이 믿음이다.

2. 디도서의 수신자는 디도 한 사람이다. 바울을 잘 알고 있는 디도에게, 더구나 자신이 파송한 디도에게 자신을 이렇게 장황하게 소개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디도가 어려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으려면 디도를 파송한 바울 자신의 소명에 대한 확신이 절대적이기 때문이다.

3.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라면(2) 누구에게 약속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약속하신 것이다. 그러면 작정, 예정과 같은 말이다. 굳이 약속이란 표현을 쓴 것도 영생의 확실성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다. 사람 사이의 약속도 반드시 지켜야 하거늘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의 약속이니 얼마나 확실한가! (한국말 '약속'은 영어의 *promise*와 다르다. 전자는 형편에 따라 어길 수도 있지만 후자는 절대로 어길 수 없는 것이다.)

4. 전도를 무엇이라고 표현하는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신 것(3)** 그러면 예수를 전하는 것과 어떻게 다른가? 다르지 않다. 말씀이 곧 예수시기 때문이다(요 1:1). 말씀의 핵심도 예수다.

5. '때'라는 단어가 두 번(2, 3절) 나온다. 어떻게 다른가?

하나는 지속적인 시간이고, 다른 하나는 일시적인 시점이다. 헬라말로 전자를 '크로노스', 후자를 '카이로스'라고 한다. 이 용어가 하도 빈번하게 쓰이므로 차이를 알아두는 것이 좋다.

6. 같은 믿음을 따라 된 나의 참 아들 디도? 사도 바울이 아무나 아들이라고 하지는 않았다. 그러면 디도가 어떤 사람이길래? 이 이름을 어디서 보았더라?

그가 '할례받지 않은 헬라인'이라는 것은 분명하나(갈 2:3) 그의 출생지와 국적은 불명하다. 디도는 안디옥 교회를 대표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더불어 제 1회 예루살렘 회의(49-50년 경)에 참석했다(행 15:2, 갈 2:1). 갈라디아서를 썼을 때, 즉 제2차 전도여행 마지막 무렵에(AD 52년 경) 바울과 같이 있었던 것 같다(갈 2:3). 바울과 더불어 제3차 전도여행 중 중대한 사명을 띠고 고린도 교회에 갔다. 고린도전후서는 디도가 사자로서 고린도 교회에 전한 것 같다. 바울은 디도가 돌아올 때까지 불안에 차 있었다(고후 2:13). 디도를 만나 보고를 들었을 때, 바울은 크게 기뻐하였다(고후 7:6).

7. 바울이 그레데에 체류했다는 기록이 사도행전에는 없다. 그러면 바울이 언제 그레데에 들렀을까?

**아마도 로마에서 풀려난 후 다시 투옥되기 전:**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마지막 기록보다 몇 년 후의 일이다(디도서 기록을 AD 66년으로 추정함).

8. 바로 잡아야 할 부족한 일이란(5)?

10-16 아닐까? 거짓 교사들의 미혹과 그레데 교인들의 혼란스런 신앙상태일 것이다.

9. 장로도 있고 감독도 있네! 누가 더 책임이 큰가?

**조건을 보면 감독이 더 까다롭다:** 실제로는 같은 직분이다(행 20:28). 장로는 지위(나이, 대표성)를 강조하고 감독은 역할(치리, 교육)을 강조하는 표현이다.

10. 장로의 조건이 별 것 아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 되는 것은 쉬운 일 아닌가?

당시에는 쉬운 일이 아니었던 모양이다. 으레 여러 부인을 두기도 했던 모양이다. 장로가 되려면 가족관계가 원만해야 했다. 수신제가치국평천하라고 하더니 그래야 교회를 잘 다스리게 되나 보다. 장로의 자격이 그리 까다롭지 않다. 그만큼 혼란한 사회였다는 반증이다.

11. 디도를 그레데에 떨어뜨려 둔 것은 부족한 일을 바로 잡고 장로를 세우려는 것이었다는데 장로를 세우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일일까?

**가장 중요한 일이다:** 교회가 바로 서는 데에는 목사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교회가 지닌 많은 문제는 목사에게서 비롯된 것이 거의 대부분이다. 교회를 개혁한다고 건물을 짓는 것보다 제대로 된 목사를 키우기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혼란은 우리 조상들이 잘난 아들은 의대, 법대에 보내고 못난 자식은 신학교에나 보낸 것에 기인한 탓도 있다. 장로나 감독을 잘 선정해야 한다.

12. 감독의 조건을 두 가지로 구분하면 소극(부정)적인 조건과 적극적인 조건으로 구분된다. 다음의 소극적인 각 조건에 이의를 단다면?

**하나님의 청지기로써 책망할 것이 없고:** 책망 받을 것이 없을 수 있나?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소신도 일종의 고집인데?

**급히 보내지 아니하며:** 천천히 내는 것은 편찮은가?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먹지 말라는 말은 아니지?

**구타하지 아니하며:** 말로 사람을 멸시하는 것이 더 무서운데?

**더러운 이를 탐하지 아니하며:** 감독이 돈을 바라고 하는 것 아니니 당연하지!

13. 감독의 자격조건 중에서 적극적인 것은 다음과 같다. 한 마디로 요약하면?

[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을 좋아하며 근신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

**말씀대로 행하는 것:**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은 위의 모든 교훈을 지키는 것이다. 감독이 먼저 본을 보여야 성도들이 따른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을 책망하기 위해서라도 감독은 자신이 먼저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한다.

14. 할례당이란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라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자들이다. 할례 받는다고 무슨 큰 일이 일어나나? 조상들이 늘 하던 일이니 그렇게 하라고 그러지?

초대교회에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다. 행위로 구원을 얻느냐 믿음으로 구원을 얻느냐는 갈림길의 문제였기 때문이다. 할례문제를 양보하는 것은 기독교의 변질인 셈이다. 이런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치는 것은 헛된 말이요, 속이는 것이다. 더구나 이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의도가 잘못된 신념에 근거한 것이 아니요 더러운 이를 취하려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단의 가르침을 좇아 가다가도 잘못되었다 싶으면 돌아서면 되는 것 아니냐?'고 하는 생각은 위험하다. 이런 생각을 하기 전에 이미 많은 것을 빼앗기기 때문이다.

15. 지방에 따라 사람들이 독특한 기질을 가지고 있기는 하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그레테 지방 사람들을 이렇게 매도해도 편찮은가?

아마 이 말은 당시 그레테인들조차 인정하는 말이었기에 가능할지도 모른다. 그레테인들은 이런 표현을 오히려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만큼 그들의 삶이 엉망진창이었을지도 모른다. 오늘 신문에(06. 8. 24 국민일보) 성우를 3명이 한 명의 후배 성우와 불건전한 성관계를 가졌다고 징계를 받았단다. 본인들 스스로가 자랑했기 때문에 드러난 사실이란다. 아마도 무척 자랑스러웠나 보다. 실제로 그레테인이란 말은 거짓말쟁이의 대명사로 쓰였단다. 한국 사람들이 *Korean Time*이란 말을 그리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것이나 비슷하지 않을까?

16. 그레테인들을 엄히 꾸짖어야 할 목적이 무엇인가?

저희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케 하고(13)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좇지 않게 하려 함이라(14). 믿음을 온전케 한다고? 믿음은 점점 온전해져야 하는 성격이 있다. 믿는다고 다 된 것이 아니라 성장해야 할 요소가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17. '허탄한 이야기'란 '신화'란 뜻이다. 유대인들이 구약성경 말씀을 왜곡해서 헬라나 로마 신들의 이야기처럼 만들어버린 셈이다. 오늘의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위험을 갖고 있지 않을까? 어떤 경우가 그런 예에 해당될까?

성경 말씀을 주술처럼 사용하거나, 이적을 사실로 믿지 않거나,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자신의 행위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려 드는 것이나...

18. 15절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에 생략된 표현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뒤에서 찾아서 보충해 보자.

**마음과 양심이 (깨끗한 자들에게는...)** 외부의 어떤 것, 즉 유대인들의 결례에 따른 것에 의해서 사람이 깨끗해지거나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양심(내부적인 요인)이 어떠한가에 따라 깨끗해지거나 더러워진다. 믿지 않는 거짓 교사들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하더라도 더러운 것이다.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란 표현과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 자'는 같은 내용이다.

19. 하나님을 (입으로는) 시인하면서 행위로는 부인하는 예를 들어보자.

**그리스도인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도 아무런 가책도 없는 것:** 가령...

## 디도서 2 장

1. 디도가 가르쳐야 할 대상은 누구, 누구인가? 누가 빠졌는가?
 

**나이 많은 남자들, 나이 많은 여자들, 젊은 남자들, 종들:** 젊은 여자들은 나이 많은 여자들에게 맡겼다. 젊은 디도가 직접 가르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는 말이다. 바울이 신뢰하는 디도라도 젊은 여자들을 직접 상대하는 것은 조심하라는 뜻 아닐까? 남자와 여자가 특별한 관계로 발전할 위험이 항상 존재하고 있음을 의식해야 한다.
2. 바른(건전한) 교훈에 합한 것을 말하라고? 설마 자기가 파송한 디도가 엉뚱한 교훈을 가르칠 거라고 예상하고 하는 말일까?
 

**앞장의 '거짓 교사들과는 다르게'라는 뜻이다:** '오직 너는'이란 말은 '그러나 너는'이라는 뜻이기도 하다.
3. 바른 교훈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 걸까? 초대 교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
 

초대교회 시대에서 바른 교훈이란 하나님의 말씀(구약)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것을 전한 사도들의 가르침(후대에 신약으로 집대성 됨)을 가리킨다. 오늘날의 입장에서 보면 바른(건전한) 교훈이란 성경 말씀이다. 성경 말씀과 합하지 않는 것을 가르치는 자(단)가 적지 않다. 복음과는 상관없는 설교(윤리적인 차원에 머무는 설교,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에 불과한 이름만 설교)도 많다.
4. 남자들이 나이가 많이 들면 특히 어떤 것에 주의해야 하는가? 왜 그럴까?
 

**절제:** 젊은 날에는 잘 참고 인내하던 분도 나이가 들면 방심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노욕이라고 하던가? 나이가 들수록 매사에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 한다.

**경교:** 위엄이나 품위를 드러내는 것이다. *NIV*는 *worthy of respect*로 번역하였다. 존경받을 만한 행동을 해야 한다는 말이다.

**근신:** 사려 깊고 성숙하게 판단하는 것이다. *self-controlled*라고 번역되기도 한다.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건전)케 되는 것:** 개역은 '온전'이라고 했지만 대부분의 번역은 '건전(sound)'이다. 믿음, 사랑, 인내가 건전한 바탕(바른 교훈)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말이다. 엉뚱한 욕심에 사로잡힌 믿음이나 사랑도 있다는 말이다. 거짓 교사들의 믿음이 바로 그런 것이다.
5. 여자들이 나이가 많이 들면 특히 어떤 것에 주의해야 하는가? 왜 그럴까?
 

**행실:** 거룩한 행실이란 나이 많은 남자들이 주의해야 할 절제와 별반 다르지 않다.

**말:** 말에 관한한 여자들이 더 능력이 있다. 나이가 들면서 이런 능력이 잘못 사용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많은 술:** 누구나 주의해야 하는 것이지만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더 술에 약하다. 술에 흔들린 손에 예리한 칼(=말)이 들려 있다면 더욱 위험하다.

이런 일에 주의하되 한 발 더 나아가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6. 젊은 여자들에게 요긴한 가르침은 무엇인가?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근신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의 핵심이다. 어떻게 사랑하느냐는 것은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기본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다. 남편을 하나님께서 가정의 대표자로 세웠음을 인정하라는 말이다.
7. 젊은 남자들에게는 할 말이 왜 별로 없지?
 

**근신:** 앞에서 언급한 것들이 젊은이들에게도 다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 아닐까? 특히 젊은이들은 힘이나 의욕이 넘쳐나기 때문에 더더욱 근신을 배워야 한다.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8. 거의 모든 대상자들에게 공통적으로 가르쳐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근신:** 자신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경우에도 기분 내키는 대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
9. 가르치는 디도에게 권면하는 것을 두 가지 말한다면?
 

본을 보이는 것(7)과 근면하며 권위를 지키는 것(15)
10. 목회자에게는 항상 대적하는 자들이 있게 마련이다. 이들에게 흠을 잡히지 않도록 유의할 것은 무엇인가?
 

**교훈이 부패치 않게 해야 함:** 교훈 자체가 부패할 리는 없다. 거짓 교사들처럼 불순한 동기로 말씀을 전하면 반드시 드러나게 마련이며 그렇게 되면 그 동안 가르쳤던 올바른 말씀조차 버림을 받게 된다. 결국 부패해서 버리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경교함**

**책망할 것이 없는(책잡힐 일이 없는) 바른(건전한) 말:** 전하는 말씀이 바른 내용이더라도 언어를 잘못 사용해서 책망 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 반말, 욕, 비속어, 난삽한 표현을 사용해서 책잡히는 일이 없어야 한다.
11. 종들에게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라'고 가르치면 주인이야 좋아하겠지만 인권론자들은

성경이 노예제도를 찬성한다고 비난하지 않을까?

당대의 체제를 뜯어고치는 것이 사도들의 목적이 아니었다. 노예해방을 전혀 말하지 않는 성경이 들어가는 곳마다 노예해방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성경은 제도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고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제도를 고쳐서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꾸어서 필요하다면 제도를 고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오늘날 노동운동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 노동운동의 결과가 '상사에게 순종, 일에 최선을 다 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고 상사를 불신하다 못해 타도의 대상으로 여기고 증오했다면 함께 망하는 것이다.

12. 성도들에게 가르치라고 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 성도의 희생적인 삶을 요구하는 것이다. 성도들이 그렇게 살 때 어떤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가? (본문에 언급된 것만)

하나님의 말씀이 휘방을 받지 아니함,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 하나님의 교훈이 빛나게 됨

13. 사도 바울은 디도를 통해서 여러 종류의 성도들에게 성도다운 삶을 살도록 권면하였다. 성도가 성도다운 삶을 살게 되는 원동력은 무엇인가? 바울의 권면? 디도의 가르침? 성도들의 희생적인 순종?

**하나님의 은혜(11-14):**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구원과 양육을 가져다주었다. 이것이 없다면 사도들의 노력이나 성도들의 헌신적인 순종도 아무런 유익이나 효과가 있을 수 없다.

14.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두 가지 결과는 무엇인가?

**구원(11)과 양육(12):** 14절의 '구속'과 '깨끗하게 하사'도 같은 맥락이다. 이 두 가지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이지만 동시에 목회자나 전도자가 해야 할 일이기도 하다. 믿으면 만사가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다. 믿음 안에서 자라가야 한다. 전도, 선교를 강조하되 양육도 필수 과정이어야 한다.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믿으라고 외치기만 하는 것은 그야말로 복음의 황무지(전혀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그런 것을 합부로 전도나 선교라고 말하는 것은 곤란하다. 애를 낳기만 하고 버리거나 혹은 기를 능력이 없는 여자에게 임신만 시키고 떠나면 어떻게 되나?

15. 더러운 그릇에는 아무리 깨끗한 음식을 담아도 제대로 상을 차릴 수 없다. 먼저 그릇을 깨끗하게 닦은 다음에 맛있는 음식을 담아야 하는 법이다. 이 비유에 나타난 다음의 예들은 본문의 무엇과 내용이 일치하는가?

1) 그릇: 우리들

2) 그릇에 묻은 더러운 것: 경건치 않은 것, 이 세상 정욕,

3) 그릇에 담아야 할 깨끗한 음식: 근신함, 의로움, 경건함, 복스러운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남을 기다림.

16.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왕이나 귀족이 특별히 아끼는 보물(히, 세굴라)처럼 여기셨다. 이 말을 개역은 주로 '내 소유'(출 19:5), '보배로운 백성'(신 26:18), '자기 기업의 백성'(신 7:6, *his treasured possession NIV*)으로 번역하였다. 같은 표현을 본문에서는 무엇이라고 할까?

**친 백성:** 특별히 아끼고 귀하게 여긴다는 것이 이 단어의 본래 의미이다.

### 디도서 3 장

1. 정사(=동치자)와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라(1)는 말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부시책에 대한 반대나 파업을 하지 말라는 말인가?

**기본적으로 순종하라는 말이다(롬 13:1-7, 신 17:12-13)** 불의한 정사나 권세 잡은 자에 관한 교훈은 다른 곳에서 찾아야 한다(출 1:15-17, 1:22-2:3(=히 11:23), 단 3:13-18, 행 4:18-20). 순종적인 자세를 갖추지 않은 채 반대나 파업에 나서는 것은 근본적인 질서를 허무는 것이어서 대단히 위험하다. 가령, 아직도 대통령 선거가 일 년도 넘게 남았는데 자기 당의 대통령 후보가 될 사람을 입에 담을 수 없는 표현을 써가며 비난하다가 그 중 한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 그 분을 나라의 어른이라고 하겠으며 제대로 순종할 수 있을까?

2. 그리스도인은 ‘복종하며 순종하며 선한 일을 행하며 훼방(비방이나 악담)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법사에 온유해야’ 한다.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기억함으로(5) = 저의 은혜를 힘입어(7)** 과거에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 이제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지, 장차 우리는 어떤 자가 되는지를 알(=그리스도인의 정체성 확립)으로 이렇게 살 수 있는 근거를 가지게 된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좇아 이루어진 것과 은혜로 하나님의 후사가 된 것을 기억하므로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 록 6:27-33에는 이보다 더 어려운 주문이 있다.

3. 선한 일 행하기를 예비하는 것이 어떤 일인지 예를 든다면?

불행한 일이 이웃에게 닥쳤을 때 도울 준비를 미리 하는 것인데, 자신도 필요하지만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서 굳이 자동차에 점프케이블, 소화기, 기타 다른 장비를 싣고 다니는 것도 예가 될 수 있다. 이웃을 돕기 위해서 저축하는 것도, 구급 장비를 싣고 다니는 것이나 응급 처치술을 배우는 것이나... 기회가 되면 잘 가르치기 위해서 미리 말씀을 공부하고 지식을 쌓는 것도 마찬가지다. 자신은 담배를 피우지 않으면서도 성냥을 꼭 가지고 다니는 친구도 있었다.

4. 전에는 우리도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단다. 설마? 난 안 그랬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를 가리킨다. 아무리 인간적으로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았다 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 인생 자체가 악이다. 악에서 어떤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

5. 우리의 구원은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가 된 것은 하나님의 어떤 성품 때문인가?

**자비, 사랑(4) 긍휼(5) 은혜(7)**

6.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삼위 하나님께서 각각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정리해 보자.

**성부:** 주체적인 역할(4)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신 분이시다.

**성자:** 촉매적인(중개자의) 역할(6), 성령이 실제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제물이 되어 주셨다. 우리 대신 값을 지불하심으로 성령이 역사하시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라는 말이다.

**성령:** 도구적인 역할(6)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실제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이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성령님의 인격적인 부분을 무시하는 듯해서 무리이긴 하지만 인간적인 방식으로 이해하기 쉽게 말하려는 것뿐이다.

본문의 표현을 근거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적인 관점에서 본 이해일 뿐이다.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려는 의도일 뿐 역할의 중요성이나 서열이나 가치에 대한 표현은 절대로 아니다. 성부 하나님만 구주가 아니라(4) 성자 예수도 동일하게 구주이시다(6).

7. 사람들에게 아름다우며 유익한 것(8)이 무엇인가?

**선한 일에 힘쓰게 권면하는 것(=여러 것을 굳세게 말하는 것)** 디도가 목회자로서 힘껏 전해야 하는 말씀이 결국은 성도들로 하여금 선한 일에 힘쓰게 하는 것이다. 성도를 구비케 하는 것이다(약 1:4). 거짓 교사들의 허탄한 이야기에 맞서서 바른 복음(4-7)을 힘 있게 증거하라는 권면이다.

8. 무익하고 헛된 것이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이다. 왜 이런 것들이 어리석고 헛된 것인가? 이런 비슷한 일이 우리 주변에도 있는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에 목숨을 걸기 때문이다:** 논쟁에서 이기려고 하지 말고 (=피하라) 사랑하라(=선한 일에 힘쓰라) 부부 사이에도 누가 옳은지 따지는 것은 무익하다. 누가 더 사랑하는지 생각해 보는 것이 유익하다. 전도를 위해서도 논쟁이나 다툼을 벌이지 말라. 전도 대상자들이 논쟁에서 졌다고 항복하고 교회로 오는 것이 아니다.

9. 이단이 무엇인가?

우리말의 문자적인 의미는 말이 다르다(異端)는 말이다(異端). 초대교회 당시에는 복음에 대한 다른 견해를 주장함으로써 분파나 당파를 만드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어떤 방식으로든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성경의 권위를 손상시키는 것이 현대의 이단성 유무를 가리는 시금석이다.

어떤 인간을 하나님의 위치에 올리는 것이나 어떤 책에 성경과 동일한 권위를 부여하는 것은 더 따질 필요도 없는 이단이다. 생각이나 해석이 좀 다르다고 함부로 이단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말 씀에 어긋남이 있는지 없는지를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

10. 예수님께서 '일곱 번이 아니라 일흔의 일곱 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셨는데(마 18:22) 아무리 이 단에 속한 사람이지만 한 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 하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위배되는 것 아 닌가?

우리 개인에게 저지른 죄와 하나님에 대한 죄는 경중이 다르다. 이단을 주장하는 자를 계속 용서 하는 것은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불가하다. 이단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참고해야 한다(눅 9:5).

11. 우리말에 어리석기 그지없는 행위를 가리키는 말로 '재 손으로 재 눈을 찌른다'는 표현이 있다. 이와 비슷한 표현이 본문에 있다면?

**스스로 정죄한 자(11):** 이단을 따르는 자는 이와 같이 어리석은 자들이다.

12. 거짓 교사들이 설치고 있는 곳에서 어렵게 목회하고 있는 디도를 자기가 있는 곳으로 불러들 이면 그레데는 어떻게 하나?

그래서 아데미나 두기고를 보내는 것이다. 디도를 불러야 할 이유가 있었지만 교회를 잠시도 비 울 수 없어서 다른 사역자를 보낼 테니 그들이 도착하거든 급히 오라는 것이다. 재미로, 니고볼리 의 '니고'는 스포츠 용품의 상표에서 가끔 볼 수 있는 말이다. 니코보코, 나이키에 들어 있는데 승 리라는 뜻이다. 볼리는 '폴리스' 그러니까 니고볼리는 승리의 도시라는 뜻이다.

13. '교법사 세나와 및 아블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에서 '보내어'의 주어는 누구일까?

**디도:** 아마도 세나와 아블로가 바울의 편지를 가지고 디도를 방문했던 모양이다. 급히 불러보내고 필요한 것을 도와주라는 당부이다. 초대교회 시절이나 지금이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전도자 들을 돕는 것은 귀한 일이다.

14. 14절의 '우리 사람들'은 누구일까? 열매는 무엇일까?

**그레데의 성도들:** 세나와 아블로의 필요를 돕는 것(=헌금)을 디도가 혼자서 할 것이 아니라 성도들 이 함께 감당하도록 가르치라는 당부이다. 헌금을 드리는 것도 성도가 마땅히 맺어야 할 열매다.